

회 의 록(안)			
회의명	제36차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회의		
일 시	2019.5.26(금) 14:00~16:00	장소	363 바이아아이디어그룹
참석자 (총 14인)	- 위원: 오병일(진보네트워크), 김보영(KISA), 김예슬(KAIST), 김태은(KISDI), 박지환(오픈넷)*, 성영모*, 손재원(고려대학교), 이동기(UNIST)*, 이미루(진보네트워크) 최은창(Free Internet Project), 최은필(카카오)* (존칭생략,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) (*온라인 참여) - 옵저버: 박민정(KISDI), 이정민, 김도균(이상 KISA)		
- 위원 : 11인 - 옵저버 : 3인			

□ 회의 주요내용

○ 2019 KrIGF 프로그램 논의(워크샵 모집 현황, 평가 등) ※ 붙임1 참고

- 총 12개의 워크샵 제안
- 주제 및 목적이 유사한 워크샵 통합
 - ▶ 2번(제안자 최은필), 9번(제안자 박경신) 워크샵 통합
- 평가결과 3번(제안자 최은필), 10번(제안자 박경신) 워크샵 제외
- 트랙명(안) : 모두를 위한 인터넷, 안전한 인터넷, 인터넷 자원, 튜토리얼
 - ▶ 모두를 위한 인터넷 - 5번, 12번, 8번
 - ▶ 안전한 인터넷 - 11번, 7번, 4번
 - ▶ 인터넷 자원 - 1번, 6번, 9번
- 프로그램(안) : 총 9개의 워크숍과 3개의 튜토리얼로 구성

○ 2019 KrIGF 통역 제공 여부(일부세션)

- 동시통역은 진행하지 않기로 함(비용, 공간의 제한)
- 7번, 8번 워크샵에 순차통역 활용 예정

○ 2019 KrIGF 슬로건 논의

- (지난 KrIGF 슬로건)

- ▶ 2014년 :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
- ▶ 2015년 : 한국 인터넷거버넌스,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?
- ▶ 2016년 : 모두를 위한 인터넷, 모두를 위한 거버넌스
- ▶ 2017년 : 똑똑한 인터넷, 열린 거버넌스
- ▶ 2018년 :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, 투명한 거버넌스

- 논의를 통해 선정된 세 가지 슬로건의 투표 진행

- ▶ (1안) 지속 가능한 인터넷, 모두를 위한 거버넌스
- ▶ (2안)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인터넷
- ▶ (3안) 지속 가능한 인터넷, 함께 하는 거버넌스

- (결론) 3안의 “지속 가능한 인터넷, 함께 하는 거버넌스” 채택

○ 2019 KrIGF 공동주관 진행상황 공유

- 공동주관 리스트(19.5.24. 기준)

- ▶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
- ▶ 가비아
- ▶ GP3 Korea
- ▶ 한국통신전자연구원(ETRI)
- ▶ 사이버커먼스
- ▶ 오픈넷
- ▶ 카카오

-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회원사를 통한 후원 요청에 대한 의견

- ISOC, ICANN의 로고를 사용하기 위한 공동주관 또는 후원 요청

○ 2019 KrIGF 포스터 디자인 초안 공유 ※ 붙임2 참고

- (1안)을 채택
- 색을 조금 밝은 색으로 바꾸고 전등을 다른 이미지로 교체

○ 2019 KriGF 인터넷 생중계 논의

- 음향 부분이 잘 나오도록 신경을 써야 함
- 인터넷 부분도 사전에 체크를 해야 함
- 프로덕션 레디고 업체를 통한 생중계를 진행하도록 함

○ 2019 KriGF 문자 통역 논의

- 속기사가 나와서 타이핑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자 통역 진행
-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
- 고유명사 같은 경우 정확한 번역이 어려움
- 스크린 사용을 하지 않고 모바일로 이용하고자 함
-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후원요청을 하였으면 함

○ 2019 KriGF 서포터즈 논의

- 모집인원: 10명
- 모집비용: 10만원, 지방에서 오는 서포터즈에 한해 교통비 지원
- 역할: 사전, 사후 홍보 및 후기 작성 업무(블로그 등) 수행
- 지원: 점심식사, 참가확인서, 기념품 제공
- 오프라인 교육을 생략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
-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(손재원 위원), 사전 홍보 및 후기 작성 독려
- 모집을 ~15일로 하여 20일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사전 홍보를 진행

□ 차기회의 일정

- 2019. 6. 21. (금), 14:00 ~ 16:00

- 3 -

[붙임 1]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(KriGF) 워크샵 제안서

2019 KriGF 워크샵 제안서

'19.5.24 (금)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체(KIGA) 사무국

No.	제안자	소속	워크숍 제목	시간	평가 결과	추가 의견
1	정선화	진보네트워킹센터	4차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경제와 노동	90분	15.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독적 자영업자 이슈 등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• 플랫폼 노동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부족하며, 토론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구체적이지 않음 • 구체적인 토론의 형태 관련 보람이 필요함
2	최은필	커카오	네트워크 통신 자원의 투명성	90분	10.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망중립성과 어느정도 겹치는 주제일까요? 주제 자체는 좋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며, 좀 더 specific한 논거들이 필요해 보임 • 망중립성 워크숍과 병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• 공공제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통신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음 • 워크숍 의제가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, 패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(가안이라도) 계획이 없음. • 전반적으로 보람이 필요하며 방향성 제시가 필요
3	최은필	커카오	한국 인터넷 산업의 혁신을 위한 규제정책의 방향성	90분	11.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나 보다 다양한 perspective/panelist가 필요한 듯 함. • 이미 워크숍 진행 방향 자체가 특정 stakeholder에게로 biased 되어있음. • 시의성은 있으나 매우 포괄적인 주제로 구체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• 관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패널이 보충되었으면 좋겠음 • 패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(가안이라도) 계획이 없음. • 방향성 탐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가 필요
4	김 민	진보네트워킹센터	사이버 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	90분	17.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의적 주제로 보임 • 논의할 주제적 안건이 제시된다면 더 좋을 것이라 판단 • 제안서의 주제와 취지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야 함
5	이동기 손재원	UNIST 고려대학교	특별 Youth Session: 청년들의 인터넷	60분	18.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층의 인터넷에 대한 시각 및 입장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으로 보임 • 주제와 청년들의 인터넷인데 토론자에 청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• 청년들의 인터넷이란 토력이 막연하며 "교육과의 관련성"만지 "젊은 이용자들의 인터넷 문화"에 대한 고민지 모호 •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양한 젊은 논제 평가 • 패널들이 기성세대인데 청년 유저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• 알리스테이크홀더 접근에 대한 논의의 현황과 이해를 도울 것으로 보임 • 패널들이 각각 다른 주제로 발표하는 형식이 되어 토론이 안 될 것 같음 • 토론 형태가 구체화 되었으면 더 나을 것이라 판단 함 • 체계적으로 구성이 잘되어 있는 워크숍 제안서로서, 내용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
6	전용준	KIGA 주초본과 유미 법무법인	도메인이름 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	90분	18.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요한 현안을 주제로 하고 있음 • 패널이 어디 소속인지 확인이 불가 • 워크숍이 보충되었으면 좋겠음 • 아시아지역 한국, 일본 공통적으로 정부 규제 제 제안된 사례임 • 제안서의 주제와 취지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야 함 • 국내 거버넌스 관련성이 없으며, 제안자가 패널로 참여하지는 여부도 불명확 • 네트워크 자원 투명성 워크숍과 병합, 연계 검토 • 참여에 대한 설명 부재 • 효과적인 질문과 의의 소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• 워크숍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내용과 유사/다른 형태의 주제들이 논의 될 수 있다고 판단 • GDPR 관련 총더로운 이슈로 보임 • 빅데이터를 언급하는 방식의 구체화가 필요함 • 시간배분과 구성, 토론의 주제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. GDPR과 개인정보 정책의 문제는 이미 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워크숍에는 새로운 접근이 없음 • 시민사회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큼 • 워크숍 제목이 사이버 보안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• 워크숍 제안서 [내]에 불합격 • 논의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 안건 제시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대동들의 관심과 참여의 지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• 인터넷과 개발협력의 연계라는 주제 가 신선하며, 유스포럼과 같은 맥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함 • 패널이 GP3 Korea 소속으로만 이루어져서 아쉬움 • 단채로만 패널이 구성되어 있는데,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해 패널 구성의 다양화 필요 • 다양한 시각의 견해를 듣기 위해 패널 보충 필요
7	Toshiaki Tateishi	Japan Internet Providers Association	Online Content Blocking	90분	16.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요한 현안을 주제로 하고 있음 • 패널이 어디 소속인지 확인이 불가 • 워크숍이 보충되었으면 좋겠음 • 아시아지역 한국, 일본 공통적으로 정부 규제 제 제안된 사례임 • 제안서의 주제와 취지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야 함 • 국내 거버넌스 관련성이 없으며, 제안자가 패널로 참여하지는 여부도 불명확 • 네트워크 자원 투명성 워크숍과 병합, 연계 검토 • 참여에 대한 설명 부재 • 효과적인 질문과 의의 소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• 워크숍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내용과 유사/다른 형태의 주제들이 논의 될 수 있다고 판단 • GDPR 관련 총더로운 이슈로 보임 • 빅데이터를 언급하는 방식의 구체화가 필요함 • 시간배분과 구성, 토론의 주제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. GDPR과 개인정보 정책의 문제는 이미 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워크숍에는 새로운 접근이 없음 • 시민사회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큼 • 워크숍 제목이 사이버 보안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• 워크숍 제안서 [내]에 불합격 • 논의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 안건 제시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대동들의 관심과 참여의 지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• 인터넷과 개발협력의 연계라는 주제 가 신선하며, 유스포럼과 같은 맥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함 • 패널이 GP3 Korea 소속으로만 이루어져서 아쉬움 • 단채로만 패널이 구성되어 있는데,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해 패널 구성의 다양화 필요 • 다양한 시각의 견해를 듣기 위해 패널 보충 필요
8	Joyce Chen	ICANN	Working Together - The Multistakeholder Approach to Governance	60분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요한 현안을 주제로 하고 있음 • 패널이 어디 소속인지 확인이 불가 • 워크숍이 보충되었으면 좋겠음 • 아시아지역 한국, 일본 공통적으로 정부 규제 제 제안된 사례임 • 제안서의 주제와 취지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야 함 • 국내 거버넌스 관련성이 없으며, 제안자가 패널로 참여하지는 여부도 불명확 • 네트워크 자원 투명성 워크숍과 병합, 연계 검토 • 참여에 대한 설명 부재 • 효과적인 질문과 의의 소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• 워크숍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내용과 유사/다른 형태의 주제들이 논의 될 수 있다고 판단 • GDPR 관련 총더로운 이슈로 보임 • 빅데이터를 언급하는 방식의 구체화가 필요함 • 시간배분과 구성, 토론의 주제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. GDPR과 개인정보 정책의 문제는 이미 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워크숍에는 새로운 접근이 없음 • 시민사회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큼 • 워크숍 제목이 사이버 보안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• 워크숍 제안서 [내]에 불합격 • 논의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 안건 제시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대동들의 관심과 참여의 지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• 인터넷과 개발협력의 연계라는 주제 가 신선하며, 유스포럼과 같은 맥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함 • 패널이 GP3 Korea 소속으로만 이루어져서 아쉬움 • 단채로만 패널이 구성되어 있는데,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해 패널 구성의 다양화 필요 • 다양한 시각의 견해를 듣기 위해 패널 보충 필요
9	박경신	오픈넷/고려대학교	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- "망이용대가"론, 네트워크중립이성, 제로레이팅, 발신자중립성 상호접속	90분	15.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요한 현안을 주제로 하고 있음 • 패널이 어디 소속인지 확인이 불가 • 워크숍이 보충되었으면 좋겠음 • 아시아지역 한국, 일본 공통적으로 정부 규제 제 제안된 사례임 • 제안서의 주제와 취지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야 함 • 국내 거버넌스 관련성이 없으며, 제안자가 패널로 참여하지는 여부도 불명확 • 네트워크 자원 투명성 워크숍과 병합, 연계 검토 • 참여에 대한 설명 부재 • 효과적인 질문과 의의 소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• 워크숍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내용과 유사/다른 형태의 주제들이 논의 될 수 있다고 판단 • GDPR 관련 총더로운 이슈로 보임 • 빅데이터를 언급하는 방식의 구체화가 필요함 • 시간배분과 구성, 토론의 주제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. GDPR과 개인정보 정책의 문제는 이미 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워크숍에는 새로운 접근이 없음 • 시민사회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큼 • 워크숍 제목이 사이버 보안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• 워크숍 제안서 [내]에 불합격 • 논의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 안건 제시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대동들의 관심과 참여의 지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• 인터넷과 개발협력의 연계라는 주제 가 신선하며, 유스포럼과 같은 맥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함 • 패널이 GP3 Korea 소속으로만 이루어져서 아쉬움 • 단채로만 패널이 구성되어 있는데,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해 패널 구성의 다양화 필요 • 다양한 시각의 견해를 듣기 위해 패널 보충 필요
10	박경신	오픈넷/고려대학교	GDPR이 허용하는 빅데이터의 미래와 한계	90분	12.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요한 현안을 주제로 하고 있음 • 패널이 어디 소속인지 확인이 불가 • 워크숍이 보충되었으면 좋겠음 • 아시아지역 한국, 일본 공통적으로 정부 규제 제 제안된 사례임 • 제안서의 주제와 취지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야 함 • 국내 거버넌스 관련성이 없으며, 제안자가 패널로 참여하지는 여부도 불명확 • 네트워크 자원 투명성 워크숍과 병합, 연계 검토 • 참여에 대한 설명 부재 • 효과적인 질문과 의의 소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• 워크숍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내용과 유사/다른 형태의 주제들이 논의 될 수 있다고 판단 • GDPR 관련 총더로운 이슈로 보임 • 빅데이터를 언급하는 방식의 구체화가 필요함 • 시간배분과 구성, 토론의 주제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. GDPR과 개인정보 정책의 문제는 이미 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워크숍에는 새로운 접근이 없음 • 시민사회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큼 • 워크숍 제목이 사이버 보안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• 워크숍 제안서 [내]에 불합격 • 논의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 안건 제시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대동들의 관심과 참여의 지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• 인터넷과 개발협력의 연계라는 주제 가 신선하며, 유스포럼과 같은 맥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함 • 패널이 GP3 Korea 소속으로만 이루어져서 아쉬움 • 단채로만 패널이 구성되어 있는데,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해 패널 구성의 다양화 필요 • 다양한 시각의 견해를 듣기 위해 패널 보충 필요
11	김경곤	고려대학교	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	60분	17.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요한 현안을 주제로 하고 있음 • 패널이 어디 소속인지 확인이 불가 • 워크숍이 보충되었으면 좋겠음 • 아시아지역 한국, 일본 공통적으로 정부 규제 제 제안된 사례임 • 제안서의 주제와 취지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야 함 • 국내 거버넌스 관련성이 없으며, 제안자가 패널로 참여하지는 여부도 불명확 • 네트워크 자원 투명성 워크숍과 병합, 연계 검토 • 참여에 대한 설명 부재 • 효과적인 질문과 의의 소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• 워크숍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내용과 유사/다른 형태의 주제들이 논의 될 수 있다고 판단 • GDPR 관련 총더로운 이슈로 보임 • 빅데이터를 언급하는 방식의 구체화가 필요함 • 시간배분과 구성, 토론의 주제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. GDPR과 개인정보 정책의 문제는 이미 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워크숍에는 새로운 접근이 없음 • 시민사회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큼 • 워크숍 제목이 사이버 보안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• 워크숍 제안서 [내]에 불합격 • 논의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 안건 제시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대동들의 관심과 참여의 지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• 인터넷과 개발협력의 연계라는 주제 가 신선하며, 유스포럼과 같은 맥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함 • 패널이 GP3 Korea 소속으로만 이루어져서 아쉬움 • 단채로만 패널이 구성되어 있는데,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해 패널 구성의 다양화 필요 • 다양한 시각의 견해를 듣기 위해 패널 보충 필요
12	원다인	GP3 Korea	빈곤 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 가능한 개발(SDG) -아시아 국가로의 인터넷 보급을 중심으로-	60분	16.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요한 현안을 주제로 하고 있음 • 패널이 어디 소속인지 확인이 불가 • 워크숍이 보충되었으면 좋겠음 • 아시아지역 한국, 일본 공통적으로 정부 규제 제 제안된 사례임 • 제안서의 주제와 취지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야 함 • 국내 거버넌스 관련성이 없으며, 제안자가 패널로 참여하지는 여부도 불명확 • 네트워크 자원 투명성 워크숍과 병합, 연계 검토 • 참여에 대한 설명 부재 • 효과적인 질문과 의의 소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• 워크숍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내용과 유사/다른 형태의 주제들이 논의 될 수 있다고 판단 • GDPR 관련 총더로운 이슈로 보임 • 빅데이터를 언급하는 방식의 구체화가 필요함 • 시간배분과 구성, 토론의 주제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. GDPR과 개인정보 정책의 문제는 이미 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워크숍에는 새로운 접근이 없음 • 시민사회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큼 • 워크숍 제목이 사이버 보안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• 워크숍 제안서 [내]에 불합격 • 논의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 안건 제시가 필요 • 제안자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구성이 불균형적임 • 대동들의 관심과 참여의 지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• 인터넷과 개발협력의 연계라는 주제 가 신선하며, 유스포럼과 같은 맥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함 • 패널이 GP3 Korea 소속으로만 이루어져서 아쉬움 • 단채로만 패널이 구성되어 있는데,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해 패널 구성의 다양화 필요 • 다양한 시각의 견해를 듣기 위해 패널 보충 필요

* 평가 결과는 각 평가위원별 평균 점수를 반올림한 값을 나타냄

(1안)

